

오늘의 기사판

2006 남도우표문화제 30일까지 북광주우체국

행사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단지 이노캐페 개소식=오전 11시 30분 한국산업단지 대불지사.
(29일)
▲제1회 아름다운 광주공원 만들기 주민대학=오후 4시 광주공원 노익복지관 강당. 송인동 호남신학대 교수가 '삶의 공동체가 복원되는 광주이야기'에 대해 강연.
▲황금닭 품평회=낮 12시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용정마을.
▲제113회 전남포럼=오후 4시 전남도청 4층 대회의실.
▲2006 '청소년 어울마당' 음악회=28일(수) 낮 12시 진도군 근내면 녹진대교 야외행사장.

전시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쇼=29일(목) 오후 7시 광산문화회관.
▲목요일연극악한마당 '채광자 초청 대금 연주회'=29일(목) 오후 7시 빛고을극악전수관.
▲연극 행성탈출=30일까지 오후 7시30분 공동예술극장.
▲오페라 '유령놀이'=29일까지 오후 5시, 8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조선대 미대 실기대회 수상 작품전=30일까지 조선대미술관.
▲2006 남도우표문화제=30일까지 북광주우체국.
▲지산갤러리 기획전 '정재형 초대전'=7월5일까지 지산갤러리.
▲대학미전=7월26일까지 롯데화랑.

▲'짚레꽃 그리운 날엔'소빈 개인전=30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관람실.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미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H-MAX 정기 회원전=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송규'전=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겔스타인 개인전=30일까지 가나아트 2층 공예관. 조각·오브제·테이블·아트상품 등 13점 전시.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강진 삼흥리 가마터 발굴 유물전=3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강진 삼흥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 태어남(1712)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 사라예보에서 암살됨(1914)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국제연맹 규약 조인(1919)
▲파키스탄, 인도와 분리 독립을 결정(1947)
▲북한인민군, 서울 점령(1950)
▲변영태 국무총리, 국회 인준(1954)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병합(1967)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어방송국 개국(1970)
▲외무부, 김형욱 청와대도청사건과 관련 미국에 항의각서 전달(1977)

뉴스퀴즈

18. 한국축구 대표팀이 지난 24일 새벽(한국시각) 독일월드컵 G조 최종 경기에서 스위스에 2-0으로 패하면서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북방 토고, '아트 시카' 프랑스와 1·2차전을 벌인 뒤 난적 스위스와 최종 3차전을 벌였으나 스위스를 넘지 못해 2002년 4강 신화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최종 성적은 무엇일까요?
①승 1무 1패 ②3승 ③1무 2패 ④3패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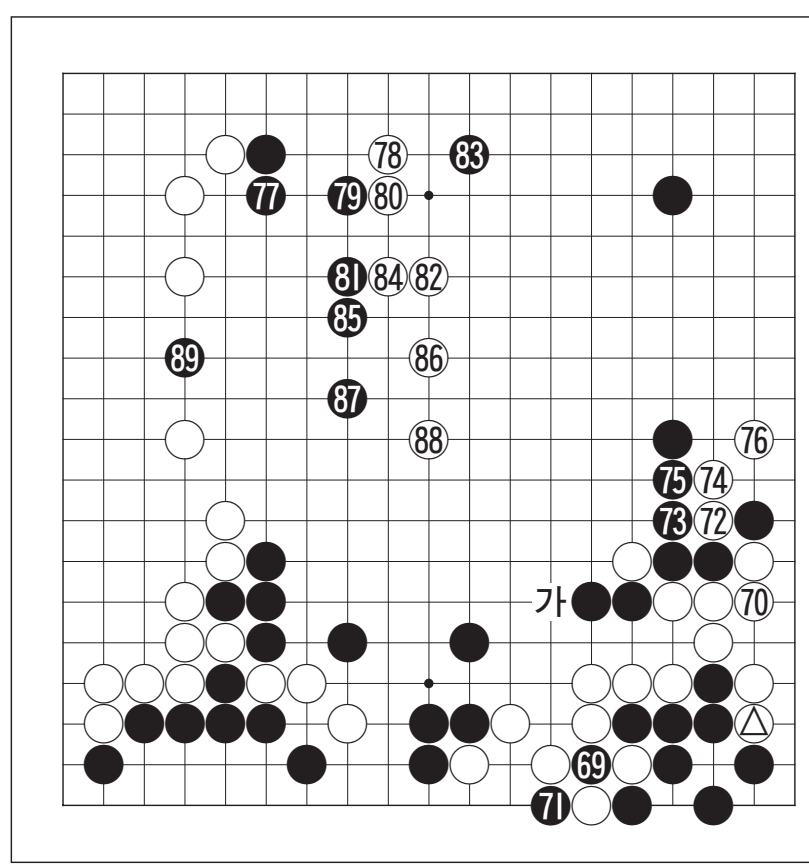
▲지나주 정답
팬이, 다리미, 펜촉, 야구모자, 송사리, 고추, 뚝단배, 갈매기, 새집



찾아보세요 종이배, 음료, 팬이, 갈매기, 열대어, 바늘, 고추, 송사리, 성냥개비

한국축구가 학생들에게 남긴 교훈
선생님: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학생1: 우리 선수들을 멀티플레이어로 키웠듯이 여러 과목을 전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좋은생각이다. 멀티플레이어!
학생2: 밤새워 공부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좋아, 체력!
학생3: 한국 축구는 강한 압박입니다. 저도 시험시간에 앉지 않은 친구를 힘으로 압박해서 케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윤정남·광주시 북구 우산동 김용상·광주시 남구 방림동



바둑소식
박지는 6단, 하호정 3단 제압
박지는 6단이 지난 26일 스키야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기 여류명인전 본선에서 하호정 3단에 22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박 6단은 조혜연 7단과 승자조 결승에서 격돌한다. 패자조로 밀려난 하호정 3단은 윤영민 2단을 상대로 재도약을 기약하게 됐다.
여류명인 타이틀 보유자는 2연패를 기록 중인 루이나이웨이 9단이며, 대회 통산 5차례 우승했다. 매일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류명인전은 제한시간 각자 30분, 초읽기 60초 5회가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1천200만원(준우승상금 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박지는 6단, 하호정 3단 제압
박지는 6단이 지난 26일 스키야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기 여류명인전 본선에서 하호정 3단에 22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박 6단은 조혜연 7단과 승자조 결승에서 격돌한다. 패자조로 밀려난 하호정 3단은 윤영민 2단을 상대로 재도약을 기약하게 됐다.
여류명인 타이틀 보유자는 2연패를 기록 중인 루이나이웨이 9단이며, 대회 통산 5차례 우승했다. 매일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류명인전은 제한시간 각자 30분, 초읽기 60초 5회가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1천200만원(준우승상금 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8일(음 6월 3일 戊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677>
That's all right with me
나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이구만
A: Don't you think we should improve our relationship? I mean, I'm thinking of having a drink with you one of these days.
B: Good idea. When?
A: How about some time next week, say, next Tuesday.
B: That's all right with me. Where?
A: 자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우리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야. 내 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자네하고 술한잔 할까 하는데 말야.
B: 좋지, 언제?
A: 다음 주, 음...!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어떨까?
B: 그거 정말 좋지, 암, 어디로 정할까?
should = had better
That's right. : 됐다, 바로 그렇다.
I mean, ~ = 내 말은 말야, ~
I'm thinking of ~ = 나는 ~ 할까 하고 생각 중이야.
one of these days : 가까운 시일 내에

호하이오 니혼고 <677>
ほとバスが怪談バスツアーを運行するんだって
하토버스가 괴담 버스여행을 운행한다
A: ほとバスが怪談バスツアーを運行するんだって。
B: ええっ、怪談バスツアーって、いったいどこを回るの?
A: お岩稻荷(いわいなり)とか浅草花屋敷(あさくさばなやしき)だって。それも講談師(こうだんし)の案内つきだって。
B: 一人じゃ興味悪行けど、團體だから、ちょっと安心ってとこかな。
A: 하토버스가 괴담 버스여행을 운행한다.
B: 옛! 괴담버스여행이라고? 도대체 어디를 도는 거야?
A: '이와이나리'라든가 '아사쿠사하나야시'라. 게다가 야담가의 안내원도 붙는다.
B: 혼자라면 어쩐지 무섭겠지만, 단체니까 좀 안심이 된다는 건가.
怪談(かいだん) : 도깨비 유령 따위가 줄거리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괴담
バスツアー : 버스투어, 버스관광
するんだって : っ는전언 ~한대
いったい : 도대체
回(まわる) : 돌다, 순회하다

니하오 쑹구위 <395>
这件有点儿肥
이 옷은 좀 혈렁하네요
A: 这件有点儿肥。
B: 那件试试这件小一号的。
A: 这件正好，挺合适的。
B: 这件也不错，挺好看的。
A: 这件有点肥。
B: 这件也不错，挺好看的。
A: 这件正好，挺合适的。
B: 这件也不错，挺好看的。

한자 이야기 <995>
獨不將軍 (독불장군)
홀로 독, 아니 불, 장수 장, 군사 군
'독불장군(獨不將軍)은 안 된다'라는 책제목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타인과 긴밀한 유대(紐帶)와 협조(協助)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독불장군'이라는 한자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글자 뜻 그대로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가 있다. 남과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독불장군인 법이니,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지요."라고 사용한다.
둘째, 남의 의견은 무시(無視)하고 무슨 일이든 혼자 처리(處理)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는 독불장군이라서 충고(忠告)해줘 봐야 소용없다."와 같은 경우이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을 말한다. "깊은 고정관념(固定觀念)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설은 그 후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된 독불장군의 설이 되고 말았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뜻은 본래 한자어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通用)되고 있는 의미이다. 호감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독불장군식의 이기심(利己心), 이타심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